

추석 연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전주시, 특별교통대책 추진... 이지콜·바로온 정상 운영·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과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이 정상 운영된다.

특히 관광객과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성묘객,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교통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교통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흐름관찰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 정체 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장애인과 오지마을 주민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정상 가동된다.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의 경우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복지·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도 25대가 정상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주요 진입로에 교통봉사대 등 일일 8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도로변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주차 안내와 교통지도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명절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무료로 개방되는 기간은 추석 연휴

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으로, △건산천 제1주차장(77면) △서산동(131면) △노송천(70면) △증화산2동(75면) △신신가지 홍산광장(120면) △효천지구 주1주차장(44면) △만성지구 주4주차장(26면) △만성지구 주7주차장(65면) △평화2동(13면) △에코시티 주12주차장(52면) △하가 리드빌딩(23면) △종합경기장(169면) 등 36개소 3076면이 무료로 개방된다.

단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제1·2·3, 노상) △오거리 공영주차장 △삼천2동 공영주차장 △덕진광장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가 역대 최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글로벌 도시, 미래를 연결하다’ 전주미래도시포럼 성료

문화도시 전주 비전 공유·미래 발전 전략 등 논의

전주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가 역대 최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도시,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전주가 가진 잠재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국내 다른 도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포럼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포럼은 △문화 △도시브랜드

의 브랜드 전략이 함께 공유돼 전주시가 이들 글로벌 도시들과 여계를 나란히 하며 더욱 도약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도시브랜드 세션에서는 전주의 글로벌 도시브랜드 'JEONJU WAH'가 발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25'에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AI시티 세션에서는 AI 헬스케어와 스마트팜, 전주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 도시 서비스와 첨단 농업기술 적용 사례가 공유돼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민들의 삶을 예측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내버스 특별노선 운행

25일 개막식·27일 시상식

관람객 교통 편의 위해 운행

전주시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식(25일)과 시상식(27일) 당일 관람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내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노선은 대규모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개막식과 시상식 종료 직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장 주변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운행방식은 오는 25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총 9대(마을버스포함)의 버스가, 오는 27일 열리는 시상식에는 총 8대의 특별노선이 오후 3시부터 10분~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교통카드 1650원, 현금 1700원)이 부과된다.

주요노선은 평화동 종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 △시의·고속버스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등 주요 거점을 거쳐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시외고속간이터미널(월드컵경기장)에서 승차하여 만차 시 순차적으로 출발

노선번호	2025
운행일시	2025. 09. 25.(목) 15:00부터~
주요노선	평화동종점 ↔ 전주월드컵경기장
평화동종점~한옥마을~시외·고속버스터미널~종합경기장~전북대학교~월드컵경기장	
평화동출발	15:00 / 15:10 / 15:20 / 15:30 / 15:40 / 15:50 / 16:00
월드컵경기장 출발 행사 종료 후 20:30부터 시외고속간이터미널에서 만차 시 순차적으로 출발	
※ 기존 시내버스요금 동일한 요금 적용(교통카드 1,650원 / 현금 1,700원)	
문의처 : 전주시 버스정책과(281-6108)	

전주시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식(25일)과 시상식(27일) 당일 관람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시내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한다.

한다.

시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온누리교통봉사대 및 현장 안내요원을 배치해 관람객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노선 운영을 통해 △대규모 국제대회의 원활한 진행 △시민과 관람객 교통편의 보장 △전주가 드론축구 중추도시이자 국제스포츠 개최도시로서 브랜드가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대중교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실현과 행사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했다.

이와 관련,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이자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펼쳐지는 드론축구월드컵에는 23개국 드론축구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권희성 기자

솔라파크에너지, 추석선물세트 기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는 지난 28일 ㈜솔라파크에너지(대표 윤근성)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120만 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 6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추석선물세트는 햄, 참치, 식용유, 식초, 올리브오일 등 명절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취업지원 사업 통해 청년 인재 양성한다

전주시가 올해도 '전주시업반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양성기로 했다.

시는 30일까지 '전주시업반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공계 및 관광콘텐츠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외 대학 재학생으로서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다.

이번 전주시업반 취업지원 사업은

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여학생에게는 60만 원의 취업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5년간 최대 4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youth.jeonju.go.kr) 또는 전주대학교 누리집(www.ju.ac.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